

금남로 '일본식 가옥' 헐렸다

72년간 광주 현대사 현장 지켜온 건물... 붕괴 위험 처해

상가신축 예정, 근대유산 상실 아쉬움

8·15광복, 6·25전쟁,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 온 금남로의 일본식 가옥이 9일 전격 철거됐다.

광주시 금남로 1가 YMCA 옆 19-8번지 철거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목조 2층 건물을 해체하기 시작했으며 가옥 철거는 3시간에 만에 완전히 끝났다.

철거현장은 부서진 벽돌 잔해와 나무 조각들이 얽히고 설킨 한때 금남로의 명물로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던 고풍스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935년경 일본인 건설업자 '우에다'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옥은 당대 '최고'의 일본 가옥으로 평가받았으며, 서민호 초대 광주시

장, 전남경찰청장 등의 관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72년 동안 역사의 현장인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시민들의 희로애락을 지켜왔던 이 건물은 5~6년 전부터는 빈집으로 방치돼 왔다. 일제시대 건축양식과 삶이 잘 반영돼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있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개인 소유 건물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건물의 부지는 414㎡ 규모로 공시지가만 30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 지난 2004년 소유주가 후손들에게 분할 상속해 현재는 17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상속 당시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정원을 주차장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철거되기 전 금남로 1가 일본식 가옥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집주인 김모씨는 "위낙 오래되고 남아 붕괴 위험이 있는데다 일제 잔재여서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거업체 측은 "4층 복층에 분할 상속해 현재는 17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상속 당시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정원을 주차장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이른바 '사시사철 철쪽 등 꽃이 피었고 설경 또한 일품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로 귀한 건축 자료였는데, 보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선홍 총장로 총재추진위원장은 "정원에서는 사시사철 철쪽 등 꽃이 피었고 설경 또한 일품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로 귀한 건축 자료였는데, 보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YMCA 옆 19-8번지 일본식 가옥이 철거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나원침 (7354) 김장두



다들 물어봐 신남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KCC방호, 시스템방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실리콘, KCC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무안공항 개항 첫날 '순조'

프로그램 오류 없어... 일부시설 오작동도

개항 첫날인 9일 무안국제공항은 순조롭게 운영됐다. 공항의 핵심시설인 탑승 수속대와 비행운행정보시스템·관제시스템 등의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고장 등으로 탑승수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공항안내센터에는 승객들의 연계 교통편 문의가 빙발쳤다. 버스 노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순천과 전주 등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할 입국자들은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애를 태웠다. 현재 ▲광주~무안(하루 왕



개항 첫날인 9일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이날 벨트 컨베이어가 고장나자 시공업체 한 직원이 승객의 짐을 손으로 X-Ray 검색대로 옮기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리무진 버스 내달 중순 운행

북 4회)▲목포~무안(4회)행 시외버스만 운행 중이다. 무안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는 내달 중순에 운행될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탑승 수속대에서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35분경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 5058편'을 타고 중국 상해로 가려던 승객 156명은 탑승 수속대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집을 이동시키는 엑스레이(X-Ray) 검색대 앞 3m 길이의 곡선 부분 벨트 컨베이어가 고장나 승객들의 탑승 수속이 1시간 가량 지연됐기 때문. 고장이 나자 벨트 컨베이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일일이 손으로 짐을 옮겼다.

이 밖에 급용기관과 식당·커피숍 등 부대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서운 10대들

여중생·초등생 안가리고 집단 성폭행

함께 살던 후배 감금 폭행 중상 입혀

10대들의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성폭행하는가 하면 집단폭행과 감금도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은 9일 귀가하던 여학생들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소년(16·고 1)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손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길을 가던 여중생 S(15·중 3)양에게 '칼이 있다'며 위협한 뒤 공사장 옆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여중생 3명을 성폭행한 혐

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에서 K(12·초등 6)양 등 초등학생 2명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8일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후배를 12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 고모(17·고 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고군의 친구 조모(16)군 등 10대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군 등은 지난 10월24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

동 K(16)군의 원룸에 찾아가 K군을 방에 가두고 집단적으로 때리는 등 장소를 옮겨다니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군 등은 폭행으로 늑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K군이 원룸을 뛰쳐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자 "도둑놈을 잡은 것"이라고 돌려대고 다시 데려와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K중학교 인근에서 J(16)군 등 6명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K(14·중 1)군 등 2명을 끌고 가 4천원을 뺏은 뒤 폭행했다. K·L군은 비장파열과 눈두덩이 뼈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 전 광주경찰청장

사표 제출

비위연루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하욱현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 이후 하 전 청장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계속되면서 하 전 청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 전 청장은 지난 7일 경찰청 본청 고위관계자에게 사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한 임명·해임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처단할 수 있는 하 전 청장의 사표를 받아들면 행정자치부를 경유해 대통령에게 최종 상신하게 된다.

하 전 청장은 지난 7일 광주경찰청 개청과 함께 초대 청장으로 취임했으며, 개청 준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항음과 함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무총리실 감찰팀 조사와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5일 직위해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 징역 4년

광주고법 전주부

광주고법 전주부(방곡성 부장판사)는 9일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모(19) 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19)군과 조모(24)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중생에게 6개월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는 행위는 인격을 무시한 것으로 중형이 마땅하나, 진양의 경우 임신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 3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A(14·중3)양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남성 8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1년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골프장 건설 인부 숨져

9일 오전 9시15분께 나주시 모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인부 최모(71·전북 장수군)씨가 미끄러진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K전력 직원인 최씨는 전기공급을 철거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흙더미와 함께 미끄러진 굴삭기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한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최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스포츠센터 불 4명 질식

9일 오전 11시38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W스포츠센터 1층 공사 중인 피부관리실에서 화재가 발생, 2·3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이용객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고 4명은 화재의 연기에 질식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불은 건물 내부 15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천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

55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광주과학기술원 학사 과정 개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사 과정 개설이 최근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 인재 육성, 연구개발 특구로의 지정 등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 600명 규모로 2008년 개설 계획인 광주 과기원 학사 과정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 20명이 광주과기원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면서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색즉시공' 이대학 성전환 수술



○영화 '색즉시공'에서 남자 대학생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 이대학(28·사진 위)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내달 19일 개봉하는 '색즉시공2'(사진 아래)에서는 여자역할로 출연.

○9일 영화 제작사 두사부필름에 따르면 이씨는 1편에서 남자 대학생 역할을 맡아 연기했으나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2편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역할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두사부필름' 관계자는 "이씨의 1편 캐리커가 유약한 남자였기 때문에 2편에서 영화적 재미를 위해 트랜스젠더 캐리커를 만들었다"며 "역할을 제의한 뒤에야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대중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준다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향뉴스

살살한 주말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7~13℃
목포	구름 많음	9~13℃
여수	구름 많음	11~15℃
완도	구름 많음	9~14℃
구례	구름 많음	5~13℃
해남	구름 많음	5~14℃
강진	구름 많음	5~14℃
고흥	구름 많음	6~15℃
영광	구름 많음	5~14℃
영암	구름 많음	6~14℃
진도	구름 많음	7~14℃
남원	구름 많음	7~14℃
남평	구름 많음	4~14℃
홍성도	구름 많음	11~1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목포 밀물 < 01:45 썰물 < 07:13
 14:24 밀물 < 19:47
 여수 밀물 < 09:13 썰물 < 02:44
 12:10 밀물 < 15:16

▲해돋이 07:01 ▲해질 17:31
 ▲달출 07:14 ▲달짐 17:1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씨						
최저/최고	6/14	4/15	6/17	6/17	7/18	8/18

기온 '뚝'

수능이 다가오면서 주말인 10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계속될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끼겠다"며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침 기온은 3~11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최고기온도 전날보다 4~5도 가량 떨어진 11~15도에 머물러 출겠다. 기상청은 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의를 기울여 주라"고 당부했다.

휴일인 11일에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2~9도에 머물러 출겠다.

한편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주에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8도·최고기온: 13~16도)과 비슷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